

제일모직, 편광필름 적자에 “사라”

삼성증권, 1/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웃돌아 ... AM-OLED가 좌우

제일모직이 1/4분기에 전자재료 부문의 수익성 회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은 4월19일 “제일모직은 1/4분기 매출액이 1조4700억원으로 추정치와 비슷하지만, 영업이익은 958억원을 달성해 예상치와 시장 평균치를 각각 11.8%, 16.4% 뛰어넘을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무엇보다 전자재료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”면서 “편광필름 라인의 공급믹스 개선과 엔저에 따른 원재료 비용 부담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”이라고 해석했다.

아울러 “앞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(AM-OLED) 재료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입과 점유율 상승 여부가 주가의 상승여력을 좌우할 것”이라고 예측했다.

삼성증권은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의견 <매수>, 목표주가는 11만원을 유지했다.

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연구원도 “1/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”면서 “엔화 약세에 따른 전자재료 부문의 원가절감 효과와 생산제품 판매단가 인하 폭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편광필름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4/4분기 마이너스 10%에서 2012년 1/4분기에는 마이너스 3% 수준까지 회복됐다”면서 “반도체 부문도 신제품 출시로 전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한국투자증권은 제일모직에 대한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9>